

성령으로의 세례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J. Van Bruggen**

번역 : 길성남

목 차

1. 주제의 중요성
2. 우리의 접근방법
3.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표현이 끼친 혼란스러운 영향
4.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으로의 충만
5. 바울서신서에 나타난 성령으로의 세례받음
6. 마가복음 16장의 표적들
7. 결 론

세례요한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자기 뒤에 누군가가 오고 있는데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는 것이었다(막1:8). 예수그리스도가 바로 그 분이다. 그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다(행1:5). 그리고 오순절에 베드로는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하였다(행2:33).

이러한 시작(the beginning)에 대한 약속은 그 뒤에 따라오는 시대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다. 성령으로 세례 받다(to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은 물세례, 신앙고백, 교회직제, 그리고 전통을 가진 기존의 교회에 몹시 충격적인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오순절운동이 성령의 세례(Baptism in the Spirit)를 조장시켰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을 말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참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마주칠때 위협을 느끼며 불안해 하고 있다.

*편집자주 : 이 글은 지난 6월 서울에서 '기독교 학술원' 주최로 모인 심포지움에서 강의한 내용인데 주최자인 차영배 교수님의 허락으로 번역하여 신게 되었다. 허락해 주신 '기독교 학술원'에 감사를 표한다.

**화란 캄편신학교 신약학 교수

주제의 중요성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being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지를 최소한 네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다.

1. 첫째는 목회적 이유이다. 교회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또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자유가 있는냐, 없느냐 하는것은 많은 교파들 안에서 격렬한 문제가 되어 왔다. 많은 개신교 진영에서는 어떤 사람 자신의 믿음과 선택의 진정성에 대해서 깊은 불확실성이 있다. 어머니로서의 교회들, 또는 교회의 성례(Sacraments)를 믿고 의지하지 않을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외적인 물세례와 눈에 보이는 교회-회중과 함께인 소위 두번째 경험(second experience)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확신시켜 주는 성령의 내적 경험인가? 그러나 어디에서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성화(sanctification)에서? 내적인 소리에서? 아니면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외적인 음성, 즉 방언을 말하는 것과 영적인 은사들 가운데서 인가?

기존 교회의 젊은 신자들은 성령으로의 세례를 옹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될때 종종 시기심을 느낀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회의 사고 유형으로는 그들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에 답할 만큼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없다.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성경적 교리(scriptural doctrine)에 대해서는 특별한 도움과 정보가 매우 많이 필요하다. 목회자들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회중의 일원들과 적절한 방법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성령으로의 세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때 교회가 성경적인 쟁점을 회피해 왔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어휘와 사고의 유형을 필요로 한다.

2. 이 주제를 다루는 두번째 이유는 교회일치적(oecumenical)인 것이다. 20세기에 우리는 오순절주의 운동이 서방세계로부터 제3세계에 이르기 까지 많은 나라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본다 로마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이외에도 오순절교회가 있는 것이다. 세계 교회 협의회(W.C.C.)는 이미 현대 기독교 세계내의 이러한 제3의 세력과 관련을 맺고 있다. 현대 교회 연합 운동에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오순절주의 운동이 기존교회 안에서 누룩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그들의 교리가 성경적 토대에 바탕한 것인가 하는 사실에 달려 있다.

3. 세번째로는 교리적인 이유이다. 외적인 것으로 판단할 때 그것은 기독교 교리의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문제처럼 보인다. 왜 정통 신앙고백들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 단지 몇가지의 특징적 사실들만을 더하고 있을 뿐인가?

이 점에서 우리는 성령으로의 세례와 기독교교리 전체, 그리고 그 핵심인 기독교론, 신론과의 깊은 관련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가지 예로 J.G. Dunn의 저작을 들어 사용할 수 있다. 그가 쓴 책은 모두 현재의 우리의 주제와 그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것이다. 그는 특히 이러한 취지에서 신약성경의 메시지를 찾고 있다.

1970년에 그는 *Baptism in the Holy spirit*¹⁾이라는 책을 출간 했다. 이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네문장으로 자신의 결론을 요약한다.²⁾

“믿음은 그 표현으로서 세례를 요청한다. 세례는 그 타당성을 위해서 믿음을 요청한다. 성령의 은사는 그 조건으로서 믿음을 전제로 한다. 믿음은 오직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만 진정한 것으로 입증된다”

회심—입교(conversion-initiation)에서의 중심점은 성령의 은사이다. 또한 물세례도 역시 회심—입교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보다 낮은 차원에서, 즉 성령께서 행하시는 깨끗하게 하심(the cleansing)의 상징으로서만 그러할 뿐이다. Dunn은 이러한 결론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령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오심과 임재를 명백하게 나타내는가”라는 격렬한 문제에 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두번째 책에서 Dunn은 이 문제를 취급한다. 그 책은 전적으로 “종교적인 경험”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³⁾ 따라서 그 책에서는 계시가 아니라(성령의)경험이 초점이 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어떤 경험을 하셨는가? 그리고 바울과 요한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했는가? 여기서는 더 이상 아들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주제가 아니라, 예수가 성령을 경험함으로써 자극받으신 방법이 주제이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더 이상 사도들의 계시, 그들의 교리와 명령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경험과 그들

1) Dunn, J.D.G., *Baptism in the Holy spirit. A Re-examination of the New Testament Teaching on the Gift of the spirit in relation to Pentecostalism today.*(Studies in Biblical Theology 2.15). London, 1970.

2) *Baptism*, p. 228.

3) Dunn J.D.G., *Jesus and the spirit. A study of the Religious and Charismatic Experience of Jesus and the First christians as Reflected in the New Testament.* London, 1975.

의 경험을 말로 나타낸 방법이다. Dunn은 말하기를 “그들의 신학은 현재의 종교적 경험과 과거의 결정적인 계시(그리스도 사건)사이의 생생한 변증법으로부터, 즉 다른 것을 좌우하지도 않고 또 다른 것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를 회피하지도 않는 해석과 재해석의 끊임없는 과정으로부터 산출되었다.”⁴⁾ 라고하였다. 비록 계시라는 말이 예수그리스도의 과거를 나타내는데 사용될 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그 말의 정상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계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Dunn은 경험의 계시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계시는 그 말이 지닌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계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공포된 경험(a published experience)이며 그자체로서는 나중에 사도들이 경험한 체험과 같은 수준의 것이다. 이것은 성자가 성령에게 증속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경험된 성령론(experienced pneumatology)이 성자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을때 그리스도론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신앙이 현재의 종교적 체험과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본래의 증거 사이의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할 때 신앙고백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나타나는 새로운 요소는 아타나시우스를 스킬레벡스(schillebeeckx)로 바꾸는 것과 같은가? 여기서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 된다; 성육신은 어떻게 되는가?

세번째 책에서 Dunn은 이 문제를 다룬다.⁵⁾ 놀랍게도 정통적인 성육신 교리는 현대적 인본주의적 신학의 교리로 바뀌어져 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지혜와 로고스 그리스도론이 표현하고자 했던 모든것을 나타내는 속기적 표현법;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자기 본위의 타락 상태에 버려두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조물과 동일시 하셨다”)라고 찬양한다. 그리고 부활절에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다.”(“다시 아담과 성령 그리스도론이 표현하고자 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속기적 표현법;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안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인간의 이기주의의 족쇄를 깨뜨리셨다”)라고 찬양한다. 또 오순절에는 “이 부활의 소망이 배타적으로 과거의 한 사람에게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믿음의 실현”을 찬양한다. 이렇게해서 여기서는 삼위일체 교리가 예수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에게 의해서 경험된 성령 하나님 교리로 바뀌고 말았다. 실제로 Dunn의 신학에서 성령세례(the baptism in the spirit)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19세기의 신앙에 결별을

선언하고 있다. 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물세례도 보다 낮은 차원으로 떨어질 뿐 아니라 그의 이름(Name)자체마저 무시되고 있다. 우리는 더이상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성령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론에 대한 Dunn의 책은 다음의 말이 보여주듯이 성자없이 끝이 난다: “사실상 삼위일체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self-communicating love)이 되셨음을 입증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것 자체로서 그가 성령안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⁶⁾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고 한 것은 성령세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그것이 반드시 비정통적인 진술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Dunn의 저작이 명백하게 해 준 것은 성령세례의 문제와 그리스도교의 중심적인 신학 사이에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4. 네번째로 이 주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마지막 포인트는 교회설립과의 관련성이다. 한국에서 교회는 매우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오순절주의가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왜 기존의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은사들을 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것들을 오순절주의자들에게 일임해버리는가? 교회의 설립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이 없는가? 그리고 한국은 신생교회가 정통교회의 전통적인 신앙고백과 현대에 일어난 성령의 은사를 결합시킬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차영배교수는 이런 제안을 했다.⁷⁾ 한국교회가 이러한 두가지의 일치를 세계 다른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둘의 일치와 대화를 실현하고자 애써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성령론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그는 Gaffin에게 반대해서 오순절 성령강림의 영속성을 옹호한다. 그리고 “유일회성”(once-for-allness)의 아이디어를 거부한다. 성령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충만케하시고 신앙과 지식에서 그들을 연합시키고 그들을 새로운 개혁 오순절 교회(a new Reformed Pentecostal church)—거기에서부터 세력이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는—가 되게 하시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해서 성령으로의 세례는 교회설립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된다.

4) *Jesus and the spirit* p. 361.

5) Dunn, J.D.G., *Christology in the Making. A New Testament Inquiry into the Origins of the Doctrine of the Incarnation*. London, 1980.

6) *Christology* p. 268.

7) Chah, Young Paul, *The Future of the Korean Reformed Theology*.

우리의 접근 방법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성령으로의 세례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는 신학사에서 이 문제가 자리한 위치에, 그리고 그것의 교리적 차원이나⁸⁾ 또는 신약성경안의 주석적 항목들(exegetical items)⁹⁾에 집중할 수도 있다. 우리의 목적은 이러한 중요한 논쟁점을 다루는데 있어서 건전한 언어학(philology)과 주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세례(Baptism)라는 말과 같은 동일한 사전단위들(lexical units)안에 있는 의미의 뿔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어떤 본문을 전체 문맥과 관련없이 억지로 끌어내어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때때로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자신의 빵을 구울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의 덩어리처럼 보인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제시함으로써 통일성을 이룬다. Dunn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세 권의 책과 관련해서 성경의 성격에 대한 또 하나의 책을 쓴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신약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다룬 이 책은¹⁰⁾ 그가 쓴 다른 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숨겨진 암호(hidden code)를 제공해 준다. 우리는 성령으로의 세례에 대한 논쟁의 밑바닥에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성경의 통일성의 수용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다. 성령 자신 이외에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그의 사역과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성경안의 성령의 말씀에 대해 존중심과 경외심이 없이 출발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의 세례에 대한 문제에 결코 명백한 답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존중에는 주의깊은 언어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닌 역사와의 관련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포함된다.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표현이 끼친 혼란스러운 영향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표현은 신학에서 정상적인 표현(normal expression)이 되었다. 우리는 오순절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복합된 낱말을 사용하곤 한다.

8) Gaffin, R.B., *Perspectives on Pentecost*. Philipsburg 1980. Runia, K., *De doop met de Heilige Geest*(in: *Rondom het Woord*, Theologische etherleergang 16(1974)37-55). Gootjes, N.H., *De doop met de Heilige Geest en de betekenis van Pinksteren*(*Radix*13(1987)139-158).

9) Dunn, J.D.G., *Baptism in the Holy spirit*, London, 1970.
Floor, L., *De doop met de Heilige Geest* Kampen, 1982.

10) Dunn, J.D.G., *Unity and Diversity in the New Testament: An Inquiry into the character of Earliest Christianity*, London, 1977.

그러나 이 표현에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행위, 또는 하나의 경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물세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물세례의 유일회적 성격이 성령세례(spirit-baptism)라는 표현에 전염되었다. 즉 유일회성의 아이디어가 세례라는 단어 때문에 물세례에서 성령세례로 이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령세례의 유일회성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있다. 많은 오순절주의자들이 개인적인 유일회적 경험으로서의 두번째 체험(second experience)—그들은 이것에 의해서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에 대해서 말하는 반면에 Gaffin은 교회가 오순절에 단 한번(once-for-all)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우선 이점에서 필요한 것은 언어학(philology)이다.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표현은 정통교의학의 고대 용어에는 없는 것이다. 최근에 이런식으로 표현이 형성된 것은 이 어휘의 변질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런가? 이 표현에서 단어들이 부당하게 연결되어서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상에서의 혼란까지 불러 일으킨다.

본인이 이러한 대담한 진술을 하게된 이유를 요약해 보기로 한다.

1. 신약성경의 어디에서도 세례(baptisma)라는 단어가 성령과 연결된 것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명사인 세례(baptisma)가 기독교내에서 만들어진 새로운말(잘 알려진 단어 baptisimos와는 다른)로서, 또 전문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요한과 기독교회의 물세례(water-baptism)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성령받음(acceptance of the spirit)을 나타내는 것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례(baptisma)는 결코 은유적으로도 성령세례(spirit-baptism)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연한 것일 수 없다. 물에 잠기는 것(being immersed in water)은 단일한 사건이다. 그러나 성령에 잠기는 것(being immersed in the spirit)은 명백하게 물세례와 같은 의미에서 단일한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물에 잠기는 것(waterimmersion(baptism))을 나타내는 전문용어가 성령받음이나 또는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데 사용될 때 혼란을 일으킨다.

2. 세례요한이 (자신은 단지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나)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것이라고 약속할 때 그것은 물과 성령이 아니라 주로 요한과 예수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시는 이는 물세례를 성령세례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로 그는 물세례를 존속시킬 것이다(마28),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았다(행2, 41, 19, 3-5). 그럼 그 차

이는 무엇인가? 요한은 물에 잠그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성령에 잠그는 것을 하실 수 있다. 그 동사는 은유적으로 세례자 요한과 메시아인 예수를 비교하는데 사용되곤 한다.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단지 세례자일 뿐이다. 그러나 (세례자에 의하면) 메시아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될 것이며 또한 성령에 '잠기게'(immerse)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오직 요한과 예수에 대해서만 타당하다.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전혀 비교되지 않으며 다만 세례자 요한과 메시아, 성령을 주시는 자 예수가 비교되고 있다. 이것은 세례주다(baptizesthai)라는 동사가 단지 요한과 예수가 비교되는 특별한 본문에서만 성령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¹¹⁾ 이러한 비교의 문맥 이외에서는 성령의 사역이 결코 물세례와 비교되거나 동일시되지 않는다.

디도서 3:5는 이러한 규칙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가? 바울은 기록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한다. 헬라어 신약 성경을 보면 여기서 *baptisma*가 아니라 *loutron*(씻음; 세례가 아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씻음이라는 단어가 세례때의 물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이것은 저자의 의도가 아니다.¹²⁾

11) 마3:11; 막1:8; 눅3:16; 요1:33; 행1:5; 11:16.

12) *loutron*이라는 단어는 또한 엡5:26에서도 사용되었다. (*dia tou loutron tou hudatos en remati*): 우리는 여기서 물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명사 *rema*(말씀)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하게 된다. 즉 바울이 복음을 믿음으로서 이루어지는 개종의 행위와 또 이 신앙의 깨끗하게 하는 효력을 상징하는 세례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도서 3:5에서는 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의 씻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러한 단어의 연결을 "중생과 새롭게 하심" (of regeneration and renewing)이라는 중간에 들어간 설명적인 단어들 통해서 해석한다. 이러한 씻음은 영적인 것이다. 즉 그것은 사람들을 중생시키는 것과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물세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그는 *loutron* 대신에 *Baptisma*라는 헬라어 단어를 더 기꺼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loutron*과 같은 일반적인 특별하지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단어를 피한 것이다. *loutron*은 신약성경에서 세례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물이라는 단어가 덧붙여질때만 물세례를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엡5:26). 동사 *louein*은 단지 *apolouein*의 경우 두번(행22:16; 고전6:11)을 제외하고는 세례와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이 동사는 다음과 같은, 달리 강조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단번에 오점이 제거되다 라는 것이다(어린아이는 씻겨지나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이 정결하게하는 과정으로서의 새롭게함과 중생을 통해서 우리를 씻기심으로서 세례를 받을때 죄인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3.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성령으로 세례받는것 뿐 아니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¹³⁾(마3:11, 눅3:16). 이것은 메시아의 심판의 불이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위협을 성취할 것이다. 그는 명확한 영적인 생명과 명확한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¹⁴⁾ 이러한 관계는 성령으로의 세례 받는 행위가 단순히 오순절 날에 일어난 유일회적인 사건 (once-for-all event)이 아님을 분명하게 해준다. 이러한 메시아의 행위는 심판의 날까지 계속된다.

4. 여기서 새로운 것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각기 다른 상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다. 세례요한은 자기 뒤에 신발을 신은 다른 분이 올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강력하다. 그는 강력한 분이시다. 사람의 옷을 입은 이 신적인 존재는 미래에 성령을 줄 것이다. 요한의 약속에서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영(성령)의 사역과 오시는 분을 연결시킨 것이다. 요한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이 표현의 중요성은 세례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성령의 중재자가 오신다는데 있다.

5. "성령으로 세례를 주다" (*baptizing with Holy spirit*)는 표현은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선택된 것이다(그 경우에 세례 요한은 세례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특수한 직무의 어휘를 사용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표현의 의미의 내용은 구약성경의 예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여주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결과이다(겔37:14).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래서 불과 심판의 날에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요엘 2:28-32).

하나님의 영의 사역은 구약성경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삼상1:10-11; 왕상22:24-25) 선지자이기도 했던 다윗

13) 중요한 사본에는 마태3:12에 "불에"라는 단어가 없다.

14) 우리는 불을 성령의 열광적인 사역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오순절날의 불의 혀와 비교). 세례요한의 설교의 맥락을 살펴볼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마3:12와 함께 3:10) 성령의 쏟아져나옴(out pouring)이 명확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인 것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까절하는 자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자로서 불에 태워질 것이다.(말4: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그토록 심각한 것이다! 불에 대한 언급은 마가복음에는 없다. 그것은 마가가 세례요한에게 반대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적대적인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점에서 마태와 누가는 마가와 다르다).

안에 거하셨다¹⁵⁾(시51; 13).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영에게 반역했을때 그는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사63: 10).

그러나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볼때 우리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고 있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몇번이고 이스라엘에게 멸시를 받으신다. 과연 누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는가? 죄용서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백성안에 성령이 보다 더 영구히 내주하는 가능성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앞으로 오는 죄용서를 준비하게 하며 또 그들이 죄를 용서받은 결과로서 오시는 구원자가 성령의 역사를 보장해 주리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는 더이상 친구에서 원수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의 빛 가운데 행할 것이다. 메시아는 세례요한이 강에서 물로 세례를 준 것과 같이 사람들을 성령 안에 잠기게 할 것이다. 물론 말라 버리지만 성령은 영원히 살아서 거하신다.

계시사 때문에 역사적으로나(오순절에) 또는 개인적으로나(두번째 경험) 단일회적인 성령으로의 세례(a once-for-all baptism with the spirit)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메시아는 유일회적인 사건(a once-for-all event)이 아니며 그것은 그의 성령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성령을) 보증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메시아, 즉 중재자(Mediator)는 계속해서 활동하실 것이다.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불과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요한의 약속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으로의 충만

그런데도 사도행전은 물세례와 비교하여 특별한 유일회적인 성령의 사역이라는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표현이 신약성경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사도행전에서 그런 사건의 사실들(facts)과 발자국(foot-marks)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지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1.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요한의 약속은 승천하시기전 예수님에

15) 시편 51, 13은 구약성경의 신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사장의 말이다(51, 51과 비교).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와 범한 죄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그 특별한 은사를 거두어 가시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의해서 반복된다(행 1: 5).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이 가이사랴에서 비유대인인 고넬료에게 주어지는 순간 그 약속을 기억한다(행11: 16). 동사인 세례주다가 성령과 연결되어 사용된 것은 단지 이 두 본문에서 뿐이다. 그리고 그 두 곳에서 물세례를 배운 세례요한과 성령세례의 예수가 비교된다.

2. 성령 자신은 새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는 이미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각기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1: 16; 4: 25; 28: 25)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성령은 옛 언약의 영이며 결코 새로오신 분이 아니다!

3. 예수는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았고 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셨으며 자신의 권능있는 사역을 수행하였다(행 1: 2; 10: 38). 성령은 낯선 분이 아니다: 그는 예수의 영인 것이다!

4.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요엘의 예언의 성취이다. 이 선지자는 젊은이, 늙은이,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하여 꿈을 꾸며 환상을 보고 징조를 보리라는 성령의 은사의 충만을 약속했다. 이 약속의 실재는 처음으로 오순절 날에 나타났다(행 2: 17-18, 33). 여기서 사용된 특별한 동사는 "부어준다"(to pour out)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세례주다라는 동사의 은유적인 사용(metaphorical use)과 연결되어 있음을 본다. 성령은 충만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오시고 있다. 그것은 심판의 날이 오기전 마지막 때에 특별한 것이다.

이러한 성령을 "부어주심"은 어느 한 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¹⁶ 성령이 고넬료의 집 사람들 위에 임하셨을 때 누가는 다시 동일한 예언적 동사(prophetic verb)를 사용한다. 베드로와 함께 온 형제들은 오순절 후에 성령이 "부어지는"것에, 특히 성령이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셨다는 것에 놀란다(행 10: 45).

5. "부어주심"은 성령의 사역의 지속적인 충만을 의미한다(The "pouring out" signifies the continuing fullness of the work of the Holy spirit)그는 믿는 자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을 감

16) Gootjes, *Doop met de Heilige Geest*, p. 148, 그는 말하기를 행 11: 16에서 베드로는 단지 오순절의 성령으로의 세례와 고넬료집에서의 사건을 비교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11: 17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 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말한 것을 무시했다. 사도행전 2장과 10장은 완전하게 일치한다(There is a complete correspondence between Acts 2 and 10.).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사도들에게세례를 주신 것과 같이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하셨다고 결론을 내린다.

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들은 능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행 1: 8; 5: 32). 각각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거나 또는 영으로 충만하여 결정적인 말을 했다(행 13: 9; 21: 4, 11). 그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정보나 교훈을 주시기 때문이다¹⁷⁾(8: 29; 10: 19; 11: 12; 11: 28; 13: 2; 16: 6-7; 20: 22-23).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은 방언을 말한다(행 2: 4; 10: 46).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행 4: 8, 31; 6: 10; 7: 55; 9: 17; 13: 9). 사람들은 지혜와 기쁨과 믿음으로 충만해진다(6: 3, 5; 11: 24; 13: 52).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믿은 자들의 전체회중은 성령의 위로하심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다(행 9: 31¹⁸⁾). 장로들은 기도와 금식과 함께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진다(행 14: 23을 보라).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장로들이 세움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었다(행 20: 28)

6. 이렇게 믿은 자들의 회중 가운데 성령이 풍성하게 내주하시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령을 속이거나(행 5: 3, 9), 또는 옛 언약의 시대와 같이 그를 거스리는 것도 가능하다(7: 51).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파멸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다: 그것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마리아에는 믿음이 있었으나 그 얼마 후에야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행 8). Dunn¹⁹⁾과 Versteeg²⁰⁾에 따르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례의 참된 내용은 사도의 손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을 때에야 비로소 주어졌다. 한편

17) 때로 성령은 아무 말없이 사람들을 인도하거나 또는 먼곳으로 옮겨 가시기도 한다. : 행 8: 39

18) 이 귀절의 문법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귀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야 한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대부분의 사본에는 복수로 되어 있음)이 분명히 세워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는 동안에 그 교회들이 평안하였더라." 교회설립의 과정이 평안했고 파란이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주(사람이 아니라)를 경외하며 성령(다른 사람들이 아니라)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행동한 놀라운 결과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약해지지 않고 믿는 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19) *Baptism* pp. 55-72.

20) Versteeg, J.P., *Het ontvangen van de Heilige Geest in Samaria*(in: *Uw knecht hoort*, Amsterdam 1979, pp. 167-189).

Calvin은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옹호한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추가적인 성령의 은사였다. 나중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은 이미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오순절 사건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실을 본다. 즉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며 오순절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the apostles were already believing in Jesus, but at Pentecost they received a fullness of the Spirit.) 그런데도 사마리아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오순절 후에는 예수를 믿으면 즉시 그의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예외적인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이유가 있다. 사마리아에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다.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능력이라는 점에서 종교를 설명하곤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강력한 교훈을 필요로 했다. 예수의 새로운 종교는 무엇보다도 믿음과 순종의 종교이다. 예수의 능력이 없이는 이러한 믿음도 없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이 믿음을 입증할 뿐 그것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다. 사마리아에는 구원자인 예수가 없는 오순절주의 운동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천천히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지체함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의 능력이 시몬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몬 자신이 바로 그가 거기에 있었기에 그러한 교훈이 필요했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증거였다.

우리는 고넬료의 경우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한다. 여기서(행 10) 성령은 세례전에 주어진다. 물론 믿음을 가지기 이전은 아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역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다: 즉 그것은 유대그리스도인들이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운 교훈이었다는 것이다(행 11: 15). 그러기에 고넬료의 집에서 의미있는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대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오순절주의 자들에게는 사도행전 8장이 정상적이며(오직 성령세례를 통해서만 참된 기독교가 존재한다) 10장은 예외적이다(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임회하는 것은 물세례를 통해서이며 성령세례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교회들에서는 전혀 다르다. 사마리아의 경우가 예외적이며(정상적으로는 물세례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넬료의 경우가 정상적이다(물세례를 받는 것은 곧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dilemma)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계시사의 특별한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사마리아와 고넬료 사건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그들 모두가 그들의 상황에서는 좋은 것이며 정상적인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사마리아의 사도들,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놀란 사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물세례는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형제로서 받아들여지는 정상적인 방법(normal way)이다.

2.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예수의 영의 은사를 받으며 지혜, 기쁨, 강한 믿음, 말씀의 능력, 성경을 통한 인도, 때로는 방언, 예언, 신유의 은사등을 기대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모든 은사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이 한 몸 안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함께 참여한다(고전 12장과 비교하라).

이런 점들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확증된다(행 19장). 믿음과 성령받음의 차이와 그들의 관련성은 바울의 질문에 나타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행 19: 2). 그들이 부정적인 대답을 했을 때 바울은 놀란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19: 3).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한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세례 요한 뒤에 오신 강력하신 분임을 경험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다. 물세례와 성령의 부어주심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면서도 연결되어 있다. (water-baptism and the outpouring of the Spirit Holy distinguished and connected.)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도행전에서 사실상의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는 것(the factual being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방법은, 이 표현이 새로운 상황을 알려준다는 것, 그리고 잘 알려진 선지자들의 성령이 예수에 의해서 그의 이름으로 남자나 여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해 준다. 여기서 성령의 은사는 중심적인 메시지도 아니며 믿음의 중심적인 초점도 아니다(사마리아의 경우와 비교하라). 다만 그것들은 주 예수의 능력을 알려준다. 그리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과제를 수행하게 하며 회중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게 만든다. “성령

으로의 세례”에 대하여 믿음이 진정한 것이 되게 하는 필요불가결한(두번째) 경험²¹⁾으로서나 또는(오순절)²²⁾ 유일회적 사건으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령이 “부어지는 것”(being poured out)은 믿는 자들이 몇번이고 반복해서 그리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받는 영원한 실체를 나타낸다. (The “being poured out” of the Holy spirit indicates a permanent reality in which the believers share again and again and in different ways.)

또한 사도행전에서 사용된 언어를 볼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성령의 은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오해로 이끄는 것이다. 믿음으로 부르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은 효력이 있다.²³⁾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중심적인 분은 예수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은 돕는 자로서, 아버지께 의해 부름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교의학적 표현은 매우 다르다. 교의학은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많은 혼동을 일으키게 만든다.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그리고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어져서 그 믿음을 강하게 하고 지지해 준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 21) Dunn, *Baptism*, pp. 83-89, 그는 행 19장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끌어낸다. “물세례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했었다면 그들과 더불어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다.”
- 22) Gaffin, *Perspective on Pentecost*, pp. 13-41,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순절은 영광 중에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교회에 오신 것이다. 사마리아, 고넬료 그리고 에베소 사건들(행 8; 10; 19)은 이 유일회적인 오순절이 사마리아, 고넬료, 그리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로 확장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건들은 오순절의 부록(appendix)을 형성하며 그것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성시킨다.”
- 23) 행 2: 47(“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1: 18(“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은 회개를 주셨도다”); 11: 21(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 오더라”); 14: 27(“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15: 4와 비교); 15: 8-9(“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가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16: 14(“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6: 15와 비교; 저가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에서 믿음과 성령 충만이 구별된 것은 또한 믿음을 일으키는 주님(하나님)과 이러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 사이의 구별이기도 하다.

교의학의 표현 방법과 사도행전의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²⁴⁾ 교리에는 아주 차이가 없다. 단지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바울 서신서에 나타난 성령으로 세례 받음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는 표현은 대개 “성령으로 충만해지다” 또는 성령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바뀌어 나타나곤 한다. (The expression “being baptized with the Spirit” usually is exchanged for “being fulfilled with” or “having received” the Holy spirit.) 이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세례받다”라는 말이 은유적으로 사용된 것은 본래적 자리에서, 즉 요한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상황에서만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바울서신서에는 한가지 예외가 있다. 우리는 고전 12:13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읽게 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귀절의 두번째 부분이 암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²⁵⁾ 그러나 첫째 부분이 암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세례를 받다”는 것은 물세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에서 우리는 두가지 문제를 느낀다. 첫째 세례를 주다(baptizein eis)는 표현은 항상(그리스도, 또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 몸 안에서 세례를 받다”(to be baptized in one body)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연결처럼 보인다. 둘째, 성령은 결코 물세례때에 행동하지는 존재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물로)세례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 24) Dunn, *Baptism*, p. 93ff., 그는 Kuyper를 인용하면서 교의학(“성령을 받는 것이 믿음에 앞선다”)과 사도행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한다. 그에 따르면 사도행전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개종의 행위와 동일시되고 있다. 우리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믿음의 행위(주님에 의해서 일어나는)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가 크게 구별되고 있기 때문이다.
- 25) Robertson과 Plummer (ICC)는 두번째 부분에 대한 세가지의 가능성있는 해석을 제시한다(첫번째 부분이 물세례에 대한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해서): a.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한 성령으로 잠겨졌다. b.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물세례가 완전해진다; c. 성만찬이 우리의 물세례에 더해진다. 그러나 여기서 부정과거(*epitisthēmen*)가 어떤 한정된 경우를 가리키고 있다면 세번째 설명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매우 예외적인 표현 방법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13절 상반절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다(baptize with spirit)라는 표현의 단어 연결은 정상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13절 상반절에서 *en henī pneumati*라는 말을 *ebaptisthēmen*과 연결시켜야 한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것은 바울이 모든 믿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것(그들의 신앙고백)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뜻에 따라서 다양하게 믿는자들에게 주어지는 개별적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문맥과 잘 어울린다. 서로 다른 은사들은 한 성령으로의 한 세례의 결과이다(one baptism with one spirit). 한 영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처럼 그의 많은 은사와 함께 한 성령도 한 몸을 형성한다!

13절의 두번째 부분의 해석은 어떤 사본의 본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은 동일한 성령으로의 세례²⁶⁾나 또는 하나의 성령으로의 세례(one baptism with the spirit)로 이어지는 것으로서의 물세례²⁷⁾를 암시하고 있다. 이 두 경우에 13절 상반절의 첫번째 부분은 성령으로의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이 해석은 뜻이 통한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은 은사를 받았다(행2장, 10장과 비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고린도 교회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이나 자유자” 사이에 더 이상 어떤 차이도 없다!

다른 분이 와서 “물 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세례요한의 약속에 대한 이러한 예외적인 언급을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그는 신령한 은사(12:1),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12:3)²⁸⁾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고린도 전서 12:4-11에서 바울은 신자의 공통된 신앙고백이 아니라 개별적이며 특

26) 다른 본문 *hen pneuma epitisthēmen*(eis가 없는)은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with) 마시웠고 적셔졌으며 불어넣어졌다.” 여기서 이것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물이 대어져서 비옥하게된 땅이다. 그러나 우리의 물은 성령이다!

27) 다른 본문 *eis hen pneuma epitisthēmen*(eis가 있는)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에게(to) 마시웠고 적셔졌으며 불어넣어졌다.” 이것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또 다시 땅에 물을 대는 것이다. 그 목적은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불어넣어지는 것, 급수되는 것”은 약속과 기대로서의 물세례를 암시한다: 물세례에 잠긴 믿는 자는 다른 믿는 자들과 같이 동일한 영을 받을 것이다.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영만을 기대할 뿐이다.

28) 고전 12:3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은 신앙고백과 물세례의 순간이 아니라 설립된 교회 내부의 상황이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12:8; 14, 29-31과 비교). 이런 상황에서 그는 결코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나 또는 예언을 하는 중에, 가르치는 중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그들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별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연결을 사도행전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물세례(신앙고백을 포함해서)를 받은 후에 성령을 부어 주신다. 믿는 자는 중재자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바울의 특별한 가르침은 우리가 이러한 은사들을 마음대로 개개인을 위한 것으로 분리시킬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한 성령과 한분 예수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우리를 한 몸 안으로 연결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의 공동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바울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을 모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그가 모든 서신서에서 성령을 신앙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차적인 회심의 행위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엡4장). 이러한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다. 그것들은 믿는 자들의 신앙을 구성하거나 그것을 보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살아있는 구원자와 연결시킨 믿음의 정상적인 결과이다.

마가복음 16장의 표적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어떤 사람을 믿는자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서에서 믿음과 물세례는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참되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믿는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것때문에 우리는 막 16장의 최초의 약속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 16-18).

중중 이 본문은 이러한 은사들을 가지지 못한 교회—회원들을 마치 믿음이 없거나 한 것 처럼 생각하게 하여 그들을 비난하는데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주님은 “이 표적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거나 또는 “믿는 자는 이 모든 표적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실제로 예수님은 단지 이 표적들이 있을 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약속하시고 있을 뿐 믿는자들이 모두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가 사용하신 특별한 동사에 주목해야 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헬라이어 동사는 *parakolouthem*이다. 이것은 믿는자들에게 무엇인가가 따르거나 또는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표적 그 자체가 매우 강조되며 표적을 행하는 자의 행위가 강조되고 있지 않다. 이 동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상황에서 설명될 수 있다(막16: 15). 사도들과 그들을 돕는 자들은 세상 안으로 행진해 오고 있다. 그리고 장군들과 황제들 뒤에 전리품의 행렬이 따르듯이 복음 전파자들의 뒤에는 그들의 주님의 권능의 흔적이 남는다. 믿음을 가진 복음전파자들의 전진은 놀라운 표적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표적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확증해 준다.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막16장의 마지막 절에서 볼 수 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 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16: 20)

여기서 우리는 16: 17절에서 사용된 것과 거의같은 동사(*epakolouthem*)를 발견하게 된다: 표적들은 믿는자들에게 따르거나, 수반되거나 또는 믿는 자들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를 확증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오순절에(행2장), 그리고 사마리아에서(행8장) 일어났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별한 상황은 제한된 성격을 지닌다: 즉 이 표적들은 단지 전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만 수반된다는 것이다. (these signs only accompany the preaching of the Gospel in the whole world) 우리는 이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 되었을 때 형성된 표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표적 그자체 만큼이나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셨던 주님의 권능의 행위를 기억하곤 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이야기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다. (사도행전을, 그리고 서신서에 기록된 사도들의 표적에 대한 언급을 보라²⁹⁾ 후대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돌아보지도,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거듭해서 자신의 표적을 반복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주께서 오늘날에도 같은 표적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분이 막16장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부정한다(we deny that He has to do it in order to fulfill the promises of Mark16).

결론

1. 세례라는 단어가 물세례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특별하면서도 독특한 행

29) 나의 책 *Ambten in de apostolische Kerk. Een exegetisch mozaïek*. Kampen 1984, pp. 23-36. 에서 이 문제가 더욱 풍부하게 다루어 졌다.

- 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현대적인 신학적 표현인 “성령으로의 세례”(th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요약한 표현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2. 예수그리스도는 (세례요한을 포함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성취로서 성령의 중재자(Mediator)가 되셨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 전체 백성안에 내주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이 백성은 성령안에 “잠겨있게되고”(세례를 받고)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3. 새언약에서 물세례의 행위는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연결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준다. 이들 믿는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그것은 한 몸으로 연결되기 위해서이며 또한 믿지않는 자들의 세상에 대한 표적으로서, 지혜롭고, 강력한 예수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이다.
 4.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필요한 은사들이 주어진다. 그래서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자신들에게 수반되는 표적의 실체를 받아서 그것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멧시지를 확증했던 것이다. 그리고 교회들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신령한 은사의 실체(예언, 기도, 방언, 돕는 능력,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를 받는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확신을 가지고 필요한 은사들을 간구할 수 있다.
 5.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역사적으로는 오순절에 일어난, 또는 개인적으로는 두번째 경험으로서의) 유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믿는자들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의 계속적인 실체인 것이다(the “being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is not a once-for-all event (historically at pentecost or individually as second experience), but a continuing reality of the work of Jesus christ in his believers.) 이 사역은 믿음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믿음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결실하게해준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준다!
 6. 처음에 일어나는 믿음에로의 부름과 물세례를 나중에 일어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것과 구별함으로서 우리는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 되는 것은 단지 출발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유익을 얻게 된다. 태어나는 것은 한 사건이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사는것은 평생동안 계속되는 것이다 (Being born is one thing, but living in the fullness of the spirit is the life-long continuation)
7. 일세기 이후에 성령의 가능성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또한 그가 항상 동일한 은사를 주셔야 할 이유도 없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언어를 배워야 할 시간이 있을때 특별한 공부도 없이 즉각적으로 외국어를 말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론 성령은 20세기에도 우리에게 천사의 말들을 가르치실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우리 시대에서도 교회안에서 서로 사랑하는것 보다는 훨씬 덜 중요한 것이다 (고전13장).